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심영민 부장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입을 크게 벌리라 (시 81: 10-16)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주 예수여 은혜를"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사랑과 헌신” (창세기 22:1-12)

하나님께서서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관계, 헌신의 모습은 **첫째,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가 아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별 부담 없는 헌신이 아니라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헌신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 부담 없는 헌신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와 부흥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려면,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관계, 헌신의 모습은 **둘째,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시험하실 때, 그 명령과 요구는 우리의 사리에 이해되지 않고, 내 상황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지만 믿고 순종하는 헌신의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12 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이해를 뛰어 넘는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관계, 헌신의 모습은 **셋째, 하나님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름 아닌 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 가장 붙들고 싶고, 사랑하고 있는 아들 이삭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 드리며 제단위에 올려놓았을 때 솟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 그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나 자신과 나의 인생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는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사랑과 헌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이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시) 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면 예배** -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행정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발열 체크등 준수하여 주십시오. 예배후 모임과 식사는 없습니다.
4. **부장 모임** - 오늘 오후 12시에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5. **초원 모임** - 5월 16일 주일 오후 12시에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6. **토요새벽예배** -토요 새벽 예배가 대면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카톡 라이브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7. **헌화** - 성전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붙어있는 헌화자 명단에 원하시는 주일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5/09	5/16	5/23	5/30
대표기도	심영민	김영란	윤완선	유경주
헌화성도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3,515.00	

행사 및 모임

4 월	부활절예배	4 월 4 일 (주일)
5 월	어버이주일 행사	5 월 9 일 (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아름다운 사람의 머문 자리

한국 공중 화장실에 가보신 분들은 소변기 앞에 붙여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구로 인해 화장실을 훨씬 깨끗하게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문구를 만드신 분의 글이 있어 나눕니다 「20년 전인 1997년의 일이다. 길에서 침 뱉기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이 얼마 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구를 만든 계기가 되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였던 나는 회의 안건으로 “침 뱉지 않기 국민운동이 어떠냐” 고 했다. 그러자 “침도 침이지만 화장실이 더 중요하다” 는 의견이 나왔다. 2000년 아셈회의, 2001년 관광의 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둔 시점이다. 특히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열리는데, 일본과 우리의 화장실은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침을 뱉거나 낙서하지 말자는 스티커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울시청역 화장실에 ‘침 뱉지 마세요’ 라는 직설적 표현 대신 ‘깨끗이 사용하세요’ 라고 써서 붙였더니 얼마 뒤 그 옆에 ‘너네나 잘해 이것들아’ 라는 식의 낙서가 돌아왔다. 두 번째로 ‘청소하는 분 울리지 마세요’ 라는 스티커를 붙이자 ‘너희들이 웬데’ 라는 낙서가 답으로 돌아왔다. 그때 문득 외할아버지가 나무상자로 만든 책상에 써 붙여 주신 ‘군자필신기독야(君子必慎其獨也)’ 란 문구가 떠올랐다. ‘홀로 있을 때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 이라는 말인데 풀이하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라는 뜻이라고 하셨다. 당시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공부하는 자리 하나 깨끗이 할 줄 모르면 큰 사람이 못 된다” 는 꾸중을 들은 기억은 있다.

스티커마다 ‘퇴짜’ 맞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세 번째 스티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를 만들어 붙였다. 이상한 낙서와 욕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스티커 좀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대전의 어느 대학 교수님은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공원묘지 화장실에 갔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는 문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했다. 그는 “나도 제자에게 더 좋은 스승, 가족에게 더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 남고 싶다” 고 말했다. 중국 중어중문학과 교수의 한 교수는 이런 글을 썼다. “한국 화장실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는 글이 있다. 그런데 중국 내 고향 화장실에는 ‘여기에 쓰레기 버리면 자손이 끊어지고 멸하리라’ 라고 써 있다. 한국에선 그 글귀가 화장실 문화를 바꾸는 씨앗이 되고 있다” (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상임대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자리도 아름답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머문 가정, 모임, 관계와 교회, 더 나아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모습을 드러냄으로 그 머물렀던 자리에 사랑과 웃음과 기쁨, 복음의 열매가 남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